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은
제3회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
이학분야에 포항공대 이영숙 교수,
공학분야에 한국에너지기술원 김미선 박사,
진흥분야에 이화여대 이혜숙 교수를
각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학

제3회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 수상자로 선정된 이학분야 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과학과 이영숙(李永叔·48) 교수는 유전공학적 기술을 써서 납과 카드뮴을 야생종보다 더 많이 흡수하는 환경정화용 식물과 야생종보다 더 적게 흡수하는 안전한 식물을 개발한 업적으로 선정됐다. 이 교수의 연구결과는 학문적인 면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학분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김미선(金美扇·48세) 박사는 미생물과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각종 유기성 폐기물 및 물로부터 수소를 생산하고, 동시에 환경처리를 할 수 있는 생물학적 수소생산 기술을 국내의 환경문제 해결과 신에너지 개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연구성과로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한 진흥분야 수상자인 이화여자대학교 수학과 이혜숙(李惠淑·55) 교수는 여성과학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WISE(Women In Science & Engineering)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이를 초·중등학교 여학생들부터 여성과학기술 전문인들에게까지 적용하여, 학생들의 개인적인 발전은 물론 국가 과학기술 인력양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WISE 온라인 멘토링이 시작된 이후 현재 여성부의 WOMEN NET, 과학문화재단의 사이버 멘토링 등도 운영되고 있다.

과학재단과 동아시아언스(사장 김두희)가 공동 시행하고 과학기술부와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은 지난 2001년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여성과학기술인을 발굴 포상하여 여성과학기술자의 사기진작과 우수 여성인력의 과학기술계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됐다.

포상분야는 이학, 공학, 진흥으로 구분하여 매년 각 분야에 1명씩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포상금 1천만 원이 주어진다. 이번 수상자는 지난 10월 후보자 접수결과 이학 12명, 공학 4명, 진흥 6명 등 총 22명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심사 및 최종 종합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



공학



진흥